

與 '재보선 레이스' 본궤도로...금주 예비후보 등록 시작

27~29일 예비후보 등록...내달 2일 유튜브 국민면접 공관위, 29일 2차 회의...세부 경선일자 윤곽 잡힐듯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경우 내달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텔리민주'를 통해 비대면(언택트) 국민면접을 진행한다.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면접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경선 일자도 금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초 서류 심사를 거쳐 설 연휴 이후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시장 후보 확정도 이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당 내 경선 대진표도 대략 완성됐다.

서울시장 경선은 이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들은 전날 이낙연 대표와 함께 서

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경선 운동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챙겼던 경험을 살려 상인들과 소통했고 우 의원은 '전통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며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며 주거, 교통, 경제부터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쳐 폭넓은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해 오고 있다.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만형격인 우 의원의 강점은 당 내 넓은 인맥과 조직력이다. 당 내 최대 계파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연)와 개혁 성향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페이스북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친문 지지층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도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26일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거 캠프 조직 구성을 마쳤으며 세부적인 정책 공약을 구상 중이다. 선거 캠프 사무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1년·2018년에 사용했던 서울 중로구 안국빌딩에 마련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문성과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출마 선언과 향후 정책 발표에도 자신의 강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코로나 대응 경험 등을 무기로 삼아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란히 맞붙은 적 있다. 당시 현역 3선에 도전하는 박 전 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박 전 시장의 득표율이 66.3%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박 전 장관은 19.6%, 우 의원은 14.1%를 얻었다.

4선의 원내대표 출신으로 관록을 쌓아온 우 의원과 같은 4선에 장관을 마치고 돌아온 박 전 장관의 '리턴매치'인 만큼 이번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장 경선은 김영춘 전 국회 사

무총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부산시 의원 3파전이 예상된다.

3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총장은 일찍부터 출마를 선언해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노무현 정신'을 내세워 부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호를 '가덕'(加德)으로 칭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고리로 신공항 착공을 조기에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0대 여성 젊은 기수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산 토박이로 금정구에서 세 차례 기초의원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시의회의장으로 선출돼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야권 유력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변 대행은 오는 26일 사퇴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 후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부산에 출마할 수도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이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있다는 하마평이 돌았으나 불출마했고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선출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1년간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배우자가 민주당 소속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으로 여러 성향에 가까운 만큼 공직 사퇴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대진표가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경선 '붐업'(Boom-up)을 위한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이달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해, 외부인사의 경우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29일까지만 입당을 완료하면 경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서육, 美 국방장관 취임 첫날 통화...“한미동맹 굳건”

미측 요청으로 통화...“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 핵심축”



국방부는 24일 서육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두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은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쌓아온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

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여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한미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며 보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스틴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서 장관과 통화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 두 장관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과도 통화를 가졌다.

오스틴 장관은 트위터에 “기시 방위상과 첫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굳건한 미일동맹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적었다.

일본 교토통신은 오스틴 장관과 기시 방위상이 이날 오전 전화 회담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인 오스틴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의원, 순천소방서 방문

빗속에서 건넌 따뜻한 위로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최근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소방서에 도착했다.

소병철 의원은 서장실로 이동하여 하수철 순천소방서장과 환담을 나누는 뒤,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8월 고 김국환 소방장(순직)을 보내고, 구례 수해복구로 몸까지 지쳐있을 때 찾아왔던 소병철 의

원이기에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렇게 환대에 주셔서 감사하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에 현장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주 찾아와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고충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직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에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지역 현안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 비도 오는데 조심히 올라가시라”며 40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소병철 의원을 배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